

6회 6득점 '빅이닝'... "연패는 없다"

KIA, 롯데戰 6회 타자일순 8안타 집중 6대0 이의리, 5이닝 8K 무실점 '완벽투' 5승 신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6회 6점을 몰아치는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주말 롯데전 연패에서 벗어났다.

KIA는 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롯데와 경기에서 선발 투수 이의리의 호투와 6회 집중력을 발휘한 타선에 힘입어 6-0으로 이겼다.

이의리는 5이닝 8탈삼진 2피안타 4볼넷 무실점으로 시즌 5승(3패)째를 거뒀다.

양팀 선발 이의리와 한현희가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펼치며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5회말 볼넷 2개를 내주며 무사 1, 2루의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KIA가 6회초 타자일순하며 8안타를 집중시켜 '빅이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고종욱의 2루타와 후속타자 소크라테스의 2루타를 묶어 선취점을 올린 KIA가 팽팽하던 '0'의 균형을 깼다.

이어 최형우가 바뀐 투수 김진욱을 상대로 적시타를 때려내 한 점을 더 보태고, 김선빈의 번트 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를 이어갔다.

롯데가 투수를 김도규로 바꾸자 이우성이 김도규의 초구를 공략, 2타점 2루타를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이어 신범수의 희생번트가 만든 1사 3루에서 김규성의 안타로 1점을 보탠 KIA는 김규성의 도루로 만든 2사 2루에서 류지혁의 적시타로 6번째 추가점을 뽑았다.

KIA는 6회 마운드에 오른 임기영이 3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9회에는 김유신 등이 등판해 이학주를 2루수 땅볼, 유강남을 3루수 땅볼, 고승민을 좌익수 플라이 잡아내며 경기를 매조지었다.

타선에서는 소크라테스가 3안타, 이우성·김선빈·고종욱·김규성이 2안타 등 팀 전체 15안타를 때려냈다.



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6-0으로 승리한 KIA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82회 문곡서상천배 역도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완도군청 역도팀. 왼쪽부터 김동민, 강민우, 서호철 감독, 이양재, 임정희.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시청 손현호, 완도군청 김동민·이양재, 보성군청 이창호

문곡서상천배 역도 3관왕 '번쩍'

광주시청 손현호(23), 완도군청 김동민·이양재, 보성군청 이창호가 제82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지난 1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81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87kg 합계 337kg을 들어올려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1월 2023 카타르컵 역도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손현호는 올해 첫 국내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남자일반부 61kg급에 출전한 김동민은 인상 125kg 용상 157kg 합계 282kg을 들어 올리며 3관왕에 올랐고, +100kg급에 출전한 이양재도 인상 166kg, 용상 215kg, 합계 381kg을 들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02kg급에 출전한 이창호(보성군청)는 인상에서 160kg을 들어 금메달, 용상에서도 200kg으로 금메달, 합계도 360kg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창호는 인상·용상·합계 신기록도 수립했다.

89kg급에 출전한 강민우(완도군청)는 용상에서 197kg의 기록으로 금메달, 합계에서 348kg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원주여고와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올해 광주시청에 등지를 둔 김담비(23)는 여자일반부 54kg급에서 인상 74kg, 용상 95kg, 합계 169kg으로 은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4일 롯데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혜진이 우승 확정 후 환호하고 있다. <KLPGA 제공>

최혜진, 롯데오픈 제패

최혜진이 4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타로 우승했다. 최혜진의 KLPGA 투어 통산 11번째 우승.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시즌 동안 10승을 쓸어 담으며 KLPGA 투어 대상 3연패를 달성한 최혜진은 2020년 11월 SK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오랜 기간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서도 아직 우승 트로피를 안아보지 못했던 최혜진은 32일 만에 우승 본능을 일깨웠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New 버스 타고! 내년엔 우승 가자"



광주도시공사가 여자핸드볼선수단의 버스를 최신형으로 교체, 지난 1일 광주시체육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평가회

광주시체육회가 지난 1일 광주시체육관에서 2022-2023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정민근 광주시도시공사 사장, 광주시핸드볼협회, 광주시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 감독 및 선수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2-2023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 성과 보고, 선수 개별

전력 보고, 시즌 총평, 선수단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5일 개막된 2022-2023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정규리그 2년 연속 2위,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에이스 강경민은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에 선정되며 개인 통산 세

'후반에만 3골 폭발'

광주FC, 안방 포항戰 4대2 역전승...FA컵 포함 3연승

프로축구 광주FC가 포항 스틸러스를 꺾고 3연승(FA컵 포함)을 내달렸다.

광주는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과 하나원큐 K리그 2023 16라운드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2로 역전승을 거뒀다.

출발은 불안했다.

전반 10분 포항의 재가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광주는 전열을 정비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반 20분 아사니가 왼발로 때려낸 강력한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공세를 퍼낸 광주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전반 25분 아사니가 쏘아 올린 코너킥이 포항 오베르단의 머리를 맞고 골

문으로 흐르면서 자책골이 됐다.

기세를 탄 광주가 이후 포항을 압도했으나 골은 터지지 않았고 전반을 1대1로 마무리했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희균을 투입해 공격에 힘을 실어줬다.

후반 10분 광주가 환상적인 역전골을 만들었다.

두현석이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차고 들어가며 때린 왼발 중거리 슈팅이 환상적인 궤적을 보이며 포항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광주는 후반 17분 허율과 이강현 투입으로 기세를 힘을 실어줬다. 2분 뒤 달아나는 추가골로 격차를 더 벌렸다. 아사니가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고 엄지성이 슈팅으로 마무리해 3-1이 됐다.

포항이 추가 골에 성공하며 다시 한



광주FC 두현석이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경기에서 후반 환상적인 역전골을 터뜨린 후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반 광주를 긴장 속으로 몰고 갔다. 후반 20분 이호재의 헤더 슈팅을 막지 못하며, 3-2, 1골 차로 좁혀졌다.

한골 차 승부가 된 상황에서 광주가 웨지골을 터뜨렸다.

후반 36분 두현석이 올린 코너킥을 안영규가 헤더로 연결했다. 결국 승부는 광주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는 포항전 홈 무승 탈출은 물론 2011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포항전 승리를 거뒀다. /박희중기자

KIA, 6-8일 SSG戰 '호국보훈 시리즈'

광주전남軍 장병 2000명 초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정전 70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 군 장병을 초청하는 등 6-8일 홈 3연전을 호국보훈 시리즈로 치른다.

KIA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광주·전남 군 장병 2천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과 식사를 제공한다.

이날 경기에 초청하는 장병은 3사단과 제3함대사령부, 제1전투비행단 등 광주·전남 지역 영토와 영해, 영공 방위의 주역들이다.

이날 시구는 해병대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임진강 전투 등에서 세운 공적으로 충무공훈장을 받은 김명식(88) 씨가 맡는다. 아버지가 보국훈장(광복

세리에A 김민재, 2선수 최초 '최우수 수비수+올해의 팀' 2관왕

'철기동' 김민재(나폴리)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수비왕'으로 뽑히는 영광과 함께 '올해의 팀'에도 선정돼 데뷔 시즌을 2관왕으로 장식했다.

세리에A 사무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2023시즌 U-23 골키퍼·수비수·미드필더·스트라이커 부문 최우수선수(MVP)' 명단을 발표하면서 '최우수 수비수'로 김민재를 선정했다.

김민재는 최우수 수비수를 놓고 나폴리 동료 조반니 디로렌초, AC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와 함께 후보에 올라 경쟁했고, 당당히 '수비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8-2019시즌부터 제정된 '포지션 별 MVP'에서 아시아 선수가 최우수 수비수로 뽑힌 것은 김민재가 처음이다.

김민재는 더불어 2022-2023시즌 '세리에A 올해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승 파티' 나폴리 팬들과 환호하는 김민재. /EPA-연합뉴스

김민재는 조반니 디오렌초, 그레이송 브레메르(유벤투스), 테오 에르난데스와 함께 포백 라인을 구성했다. 골키퍼에는 보이치에흐 슈체스니(유벤투스)가 뽑힌 가운데 미드필더에는 산드로 토날리(AC밀란), 아드리앵 라비오(유벤투스), 니콜로 바렐라(인테 밀란), 공격수에는 흐비차 크라바츠헬리아(나폴리), 하파엘 레앙(AC밀란), 빅터 오시멘(나폴리)가 '올해의 팀'에 포함됐다. /연합뉴스